

초·중학생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프로파일 분석 :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경인** · 정승원*** · 신안나****

초 록

이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1, 2차년도 자료의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응답 자료를 대상으로, 부모 양육태도의 대표적 프로파일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 적응 및 학업성취도라는 교육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다차원척도법을 사용하여 대표적 프로파일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파일 유형과 교육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 패널과 중학교 1학년 패널의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대표 프로파일을 분석 결과, '합리-애정형', '방임형', '학대형'의 세 가지 차원이 도출되었다. 둘째, 합리-애정형 프로파일의 유사성 지수는 학교 적응 및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방임형 프로파일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학대형의 경우에는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셋째, 성별과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남녀 간 개인 모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부모 양육태도의 평균 척도점수가 합리-애정형 프로파일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하위영역 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연속선상에서 양육태도의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특히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 적응, 학업성취도, 다차원척도법, 프로파일 분석

*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대학원생 공모 부분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제1저자

*** 서울대학교, 교신저자, sxc21@snu.ac.kr

**** 서울대학교, 공동저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자녀관계는 인간관계 중 가장 혈연적인 관계이며, 한 인간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녀의 성격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Bronfenbrenner & Mahoney, 1975; Medinnus, 1967; Skeel, 1966; 안현지, 1999 재인용). 이때 개인의 행동은 그 자신의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교 장면에서도 자녀의 성격은 학교에서 자녀의 행동, 참여, 교우관계, 더 나아가 학업성취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 개인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넘어 학교에서 학생으로서의 성공을 나타내는 ‘학교 적응’과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적응과 학업성취도와 같은 교육적 성과는 학생으로서의 현재 성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변인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초등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아동기의 경우, 자녀는 주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생활양식을 학습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중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초기 청소년기 역시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자신만의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시도를 하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시기(김영린, 이기학, 2011; 김지근, 이기학, 2008)이므로, 이 시기에 심각한 가정불화를 겪거나 부모가 자녀에 대해 무관심 혹은 과도한 기대를 갖는 것은 청소년들의 발달을 위협하고 학교 적응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류경희, 2003). 또한 중학교 시기에서도 학생은 초등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학교생활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학교 적응의 여부는 청소년기 이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여전하다(이경아, 정현희, 1999). 때문에 초·중학교 시기의 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교육적 성과로 대변될 수 있는 학생의 학교 적응 및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학교 적응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가 애정적 혹은 민주적일수록 학생의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과를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영린, 이기학, 2011; 남상아, 백지숙, 2011;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이승화, 2001; 임성운, 2006; 최숙현, 2009). 그러나 부모의 자율적 혹은 방임적 태도와 통제적 혹은 권위주의적 태도가 자녀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다소 일관적이지 않게 제시되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 혹은 통제적일수록 학교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장영애, 박정희, 2008; 조은정, 2012; 곽수란, 2006; 권용준, 김영희, 2011), 학교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임성운, 2006),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주희, 탁정미, 2004) 등으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 간의 관계의 경우 대체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 친애적, 성취적일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으며(황혜자, 최윤하, 2003; 김근아, 2011), 모의 역기능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김용곤, 2011).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송혜영, 김은숙, 마여실, 왕세진, 1996)와 권위적 양육태도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Steinberg et al., 1994; Leung, Lau & Lam, 1998) 또한 제시된 바 있다.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의 하위변인들을 연구자의 관심사항에 따라 척도 전체나 일부를 사용하여 회귀모형이나 구조방정식 모형에 별개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역을 별개로 살펴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전체 연속선상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의 양상을 살펴본 후, 이와 교육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하위변인 점수들의 유형을 토대로 응답자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변별하는 방법인 프로파일 분석(Stanton & Reynolds, 2000; 박현정, 양명희, 2007), 그 가운데에서도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을 사용한 프로파일 분석(profile analysis via multidimensional scaling; 이하 PAMS) 모형(박현정, 양명희, 2007)을 사용하여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차원을 도출하였다. 이는 대표 프로파일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프로파일과 대표 프로파

일간의 유사성 정도를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집단적 접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인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태도의 대표적 프로파일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도출된 프로파일에 따라 학교 적응과 학업성취라는 교육 관련 변인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교육적 성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차원척도법을 사용하여 대표적 프로파일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표적 프로파일에 대한 피험자 개인의 유사성 정도를 나타내는 피험자 모수를 추정하여, 프로파일 유형과 교육 변인간의 관계 그리고 연구자가 설정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Davison, 1994; Davison, Gasser & Ding, 1996; Davison, Kim & Ding, 2001; 박현정, 양명희, 2007).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양육태도의 대표 프로파일은 어떠한가?

둘째, 부모 양육태도의 대표 프로파일은 학교 적응 및 학업성취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성별과 학업성취도 집단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의 대표 프로파일의 양상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검토

부모의 양육태도(child-rearing attitude)는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하는 중요한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내는 일정한 행동경향성을 의미하며,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특징을 가진다(Berk, 2010; 오성심, 이종승, 1982; 서주현, 2009).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해 오랫동안 논의하여 왔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부모 양육태도는 크게 차원론적 접근과 유

형론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안현지, 1999; 허묘연, 2004). 차원론적 접근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여러 측면들로 나누어 양육태도의 주요 요인들을 독립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유형론적 접근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내는 전반적인 양육태도의 조직과 분위기에 초점을 맞춰서 양육태도를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하는 접근이다.

먼저 차원론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학자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여러 가지 독립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외의 경우 Symonds(1949)와 Schaefer(1959), 그리고 국내의 경우 오성심과 이종승(1982)이 있다. Symonds(1949)는 정신분석학적인 임상사례를 기반으로 최초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수용’과 ‘지배-복종’이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분류하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형, 수용형, 지배형, 복종형으로 설명하였다. Symonds(1949)가 임상적 사례를 통해 양육태도를 분류한 것과 달리, Schaefer(1959)는 정상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약 30년 동안 종단적으로 연구하여 ‘애정-적대’, 그리고 ‘자율-통제’라는 두 가지 양육태도의 축을 구성하고, ‘애정-자율’, ‘애정-통제’, ‘적대-자율’, ‘적대-통제’라는 양육태도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한편,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Schaefer(1959)와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양육태도의 차원을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네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유형론적 접근은 차원론적 접근이 양육태도의 여러 측면들을 독립적으로 측정하는 것과는 달리, 전반적인 양육태도의 조직과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어 양육태도를 몇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유형론적 접근을 통해 설명한 학자로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인용되고 있는 학자는 대표적으로 국외의 경우 Baumrind(1978), 그리고 국내의 경우 허묘연(2004)이 있다. 먼저 Baumrind(1978)는 ‘통제’와 ‘반응성’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세 가지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 즉, 엄격·자애형, 권위형, 허용형을 제시하였다. 허묘연(2004)은 기준에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모 양육태도 척도의 요인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요인을 바탕으로 부모 양육태도 유형을 애정, 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의 8개로 제시하였다. 먼저 ‘애정’은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자녀 중심적이면서 자녀를 존중, 수용해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로 정의된다. ‘감독’은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

도를 의미하며, ‘합리적 설명’은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가지고, 이를 일관적이고 애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며, 이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보상이나 훈육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비일관성’은 자녀에 대한 훈육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서,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태도로 정의되며,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갖는 태도로서,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태도를 말한다. ‘과잉간섭’은 자녀의 개인적인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태도로서, 자녀의 흥미나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른의 기준에 무조건 맞추도록 요구하며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불안해하는 태도이며, ‘학대’는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주고 자녀의 행동과 상관없이 과도하거나 정기적으로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는 태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방치’는 자녀의 신체적, 지적, 도덕적, 영적인 측면에서 자녀의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자녀의 발달에 무관심하며 훈육을 위한 칭찬이나 처벌이 결여되어 있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욕구를 제공하지 못하는 태도를 말한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양한 변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녀의 성격, 자아개념, 태도, 가치관 형성과 우울, 문제 행동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었으며(소선숙, 송민경, 김청송, 2010; 권재환, 이은희, 2006; 이희영, 최태진, 2005; 이영미, 민하영, 2004) 이를 토대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개인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1차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정서적 측면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업 생활과도 관련성을 지니며, 특히 고착된 사회·정서적 발달은 교육 상황에서 더욱 더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먼저 학교 적응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혹은 민주적일수록 학생의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과를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영린, 이기학, 2011; 남상아, 백지숙, 2011;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이승화, 2001; 임성운, 2006; 최숙현, 2009). 그러나 부모의 자율적 혹은 방임적 태도와 통제적 혹은 권위주의적 태도가 자녀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게 제시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 혹은 통제적일수록 학교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장영애, 박정

회, 2008; 조은정, 2012; 박수란, 2006; 권용준, 김영희, 2011), 학교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임성윤, 2006),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주희, 탁정미, 2004)가 각각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학업성취도라는 변인을 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양육자의 고용 상태 등 가족의 구조나 상황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가족의 구조가 가족 내에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의 전이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와 관련성을 논의할 수 있다(Beyer, 1995),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외에서 오래 전부터 경험적 연구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는데, 부모와 높은 친밀성을 유지하는 자녀들은 청소년기에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며, 반대로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시에는 성취도가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Morrow & Wilson, 1961). 그러나 선행연구 중에는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결과도 제시되었으며, 이는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Steinberg et al.(1994)은 권위적 양육태도가 아시아계 미국인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Leung, Lau & Lam(1998)은 권위적 양육태도가 미국과 호주에서와는 다르게 홍콩과 중국인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 친애적, 성취적일수록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황혜자, 최윤하, 2003; 김근아, 2011)들이 다수를 이루는 동시에, 권위 혹은 통제적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 없었다는 연구 결과(송혜영 외, 1996)들도 제시되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orea Children Youth Panel Survey: KCY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중다 패널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의 실태 및 변화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반복적으로 추적하여 조사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1, 2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이하 초등패널)의 2,247명(남: 1,169명, 여: 1,078명)과 중학교 1학년 패널(이하 중등패널)의 2,276명(남: 1,151명, 여: 1,125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양육태도

이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1, 2차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허묘연(2000)이 제작하고 타당화한 부모 양육태도 척도의 구성요인인 감독, 애정, 과잉기대, 과잉 간섭, 비일관성, 합리적 설명, 방임, 학대에 대한 문항을 토대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분석하였다. 양육태도에 대한 문항은 총 29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이 되어있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문항들을 역코딩(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하여 사용하였다. 초등패널과 중등패널에서 양육태도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각각 0.747, 0.700이다.

2) 교육 변인

(1) 학교 적응

이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2차년도 데이터의 ‘학교생활 적응’¹⁾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문선보(1989)의 학교생활적응척도와 이상필(1990)의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민병수(1991)가 초등학교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정화실, 1991 재인용) 중 학교행사 관련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수정, 보완한 척도이다. 학교 적응은 총 20문항으로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적응에 대한 각 문항은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이 되어있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문항들을 역코딩(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하여 사용하였다. 초등패널과 중등패널에서 학교 적응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각각 0.856, 0.866이다.

(2) 학업성취도

이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를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 대한 ‘성적’으로 정의하고,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2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초등패널 2차년도 데이터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의 성적은 ‘지난(2011년) 1학기 동안 다른 친구들에 비해 공부를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학생이 응답한 것으로, ‘매우 잘했다’, ‘잘한 편이다’, ‘보통이다’, ‘못한 편이다’, ‘매우 못했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다. 중등패널 2차년도 데이터의 경우, 중학교 2학년 성적은 지난(2011년) 1학기 성적이 정도를 묻는 것으로, 본래 ‘96점 이상’, ‘95-90점’, ‘89-85점’, ‘84-80점’, ‘79-75점’, ‘74-70점’, ‘69-65점’, ‘64점 이하’의 총 8단계 범주로 구성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5개 단계로 구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변경하였다(1=64점 이하, 2=65~74점, 3=75~84점, 4=85~95점, 5=96점 이상).

1) 이 연구에서는 ‘학교 적응’ 용어로 사용한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1,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대표 프로파일을 추출하고, 도출된 프로파일과 학교 적응 및 학업성취도간의 상관을 분석하고, 집단(성별, 학업성취도 수준)별 부모의 양육태도 양상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 적응, 학업성취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초등패널과 중등패널의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둘째,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대표 프로파일을 추출하기 위해 다차원척도법을 사용한 프로파일 분석(박현정, 양명희, 2007)을 실시하였다. 이때 선행연구와 Stress지수를 통해 차원의 수를 결정하였으며, 개인별 프로파일 분석에 대한 기술통계를 제시하고, 더불어 PAMS 분석에서 도출된 개인 모수의 의미를 예시와 함께 고찰하였다. 셋째, 분석 결과 도출된 프로파일과 교육 변인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 개인별 모수와 학교 적응 및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집단별 개인 모수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t검증과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프로파일 분석이란, 하위검사 또는 하위변인 점수들의 구조 또는 유형을 토대로 응답자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변별하는 방법을 일컫는 일반적 용어이다(Stanton & Reynolds, 2000; 박현정, 양명희, 2007). 기존에는 단순히 하위검사 또는 하위변인의 점수를 전체 평균 점수로부터의 편차 점수로 전환하여 사용하거나, 피험자간 유사성 행렬을 토대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여 유사한 특성을 지닌 피험자끼리 군집을 구성함으로써 프로파일을 추출하여 분석하여 왔는데, Davison(1994)은 프로파일 추출을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는 방식을 개선한 PAMS 모형을 제안하여 모집단에서의 대표적 프로파일 유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박현정, 양명희, 2007).

Davison(1994)의 PAMS 모형은 두 개의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다차원 척도법을 사용하여 '대표적 프로파일(prototypical profiles)'이라고 불리는 주요 프로파일 유형을 추출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이를 토대로 대표적 프로파일에 대한 피험자 개인의 유사성 정도를 나타내는 피험자 모수를 추정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피험자 개인의 유사성 지수는 추가적으로 프로파일 유형과 다른 외재적 변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박현정, 양명희, 2007; Davison, Gasser & Ding,

1996; Davison, Kim & Ding, 2001; Kim, Frisby & Davison, 2004). PAMS 모형은 다음의 식에서 시작된다.

$$m_{pi} = c_p + \sum_k w_{pk} x_{ki} + e_{pi}$$

이때 m_{pi} 는 피험자 p의 변인 i에 대한 관찰점수이고, c_p 는 절편의 $p \times 1$ 벡터로 피험자 p의 프로파일의 전반적 높이를 나타내며 피험자 p의 모든 변인에 대한 평균점수를 나타낸다. w_{pk} 는 피험자 p의 관찰된 프로파일이 k번째 대표적인 프로파일과 얼마나 유사한지의 정도를 나타내며, x_{ki} 는 대표적 프로파일 k에 대한 변인 i의 척도점수를 의미하고, e_{pi} 는 측정 오차와 모형으로부터의 체계적 편차를 나타낸다(박현정, 양명희, 2007; Davison et al., 2001; Kim et al., 2004). 이 밖에도 PAMS 모형에서는 피험자 개인별 수준 모수 및 유사성 지수와 더불어 피험자 개인의 관찰된 프로파일이 대표적 프로파일에 의해서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나타내는 R^2 값을 함께 제공해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다음 표 1은 부모 양육태도 변인의 기술통계이다. 부모 양육태도 변인은 1차년도의 ‘부모감독’, ‘부모애정’,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과 2차년도의 ‘방임’, ‘학대’에 해당하는 문항을 역코딩하여 변인을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4)’로 해석할 수 있도록 제시한 값이다. 전반적으로 ‘부모감독’과 ‘부모애정’ 그리고 ‘합리적 설명’ 영역에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방임’과 ‘학대’는 낮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표 1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의 기술통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초등 패널	부모감독	1.00	4.00	3.36	0.63
	부모애정	1.00	4.00	3.31	0.65
	비일관성	1.00	4.00	2.48	0.77
	과잉기대	1.00	4.00	2.55	0.70
	과잉간섭	1.00	4.00	2.38	0.68
	합리적 설명	1.00	4.00	3.15	0.68
	방임	1.00	4.00	1.56	0.55
	학대	1.00	4.00	1.77	0.65
중등 패널	부모감독	1.00	4.00	3.16	0.65
	부모애정	1.00	4.00	3.05	0.66
	비일관성	1.00	4.00	2.33	0.68
	과잉기대	1.00	4.00	2.63	0.66
	과잉간섭	1.00	4.00	2.41	0.63
	합리적 설명	1.00	4.00	2.82	0.67
	방임	1.00	4.00	1.87	0.59
	학대	1.00	4.00	1.84	0.72

다음 표 2는 교육관련 변인의 기술통계이다. 표 2에 제시된 통계치는 긍정적인 결과일수록 큰 값을 갖도록 역코딩한 값이다. 먼저 학교 적응 변인의 평균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교사관계’가 가장 높았으며, ‘학습활동’과 ‘교우관계’는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의 경우는 오히려 ‘교우관계’가 가장 높고, ‘교사관계’, ‘학교규칙’, ‘학습활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적을 보면,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평균이 3점대를 훨씬 웃돌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중학교 2학년의 경우 2.58~3.03의 범위를 가져 낮게 보고되고 있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 점수에 대한 보고가 아닌 자신의 인식을 묻는 문항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2

교육 변인의 기술통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초등 패널	학교 적응	학습활동	1.00	4.00	2.89	0.43
		학교규칙	1.00	4.00	3.02	0.54
		교우관계	1.00	4.00	2.86	0.45
		교사관계	1.00	4.00	3.12	0.66
		전체	1.00	4.00	2.97	0.40
	학교 성적	국어	1.00	5.00	3.88	0.85
		수학	1.00	5.00	3.69	1.01
		영어	1.00	5.00	3.74	1.15
		전체	1.00	5.00	3.77	0.78
중등 패널	학교 적응	학습활동	1.00	4.00	2.73	0.52
		학교규칙	1.00	4.00	2.79	0.56
		교우관계	1.60	4.00	3.02	0.41
		교사관계	1.00	4.00	2.80	0.66
		전체	1.30	4.00	2.84	0.41
	학교 성적	국어	1.00	5.00	2.58	1.39
		수학	1.00	5.00	3.03	1.17
		영어	1.00	5.00	2.83	1.40
		전체	1.00	5.00	2.81	1.15

2. 부모 양육태도의 대표적 프로파일

PAMS모형의 첫 번째 단계로 부모 양육태도의 여덟 가지 척도점수를 사용하여 초등패널과 중등패널에서 부모 양육태도의 대표 프로파일을 추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한 해석가능성과 PAMS 분석결과의 적합도에 따라 3개 차원(dimension)의 대표 프로파일이 선택되었다(표 3 참조). Kruskal의 Stress지수는 초등패널과 중등패널에서 각각 0.0170, 0.0055이고, R^2 은 0.9985, 0.9998로 모형 적합도가 매우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스트레스 지수는 0부터 1사이의 값을 취하며 0에 가까울수록 모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Kruskal은 .20(Poor), .10(Fair), .05(Good), .02(Excellent)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Kruskal, 1964, p.3).

표 3
다차원척도법을 적용했을 때의 모형 적합도

		1개 차원	2개 차원	3개 차원
초등 패널	s-stress	0.0091	0.0064	0.0049
	stress	0.0382	0.0215	0.0170
	R^2	0.9960	0.9982	0.9985
중등 패널	s-stress	0.0143	0.0205	0.0062
	stress	0.0148	0.0475	0.0055
	R^2	0.9995	0.9912	0.9998

도출된 3개의 차원에 따라 살펴본 프로파일의 결과, 초등패널과 중등패널 부모 양육 태도의 대표 프로파일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첫 번째 대표 프로파일은 자녀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이르는 ‘부모감독’과 ‘부모애정’, 그리고 ‘합리적 설명’을 평균보다 많이 하며, 비일관적이지 않고, 과잉기대나 과잉간섭, 방임과 학대를 하지 않는 유형이라 ‘합리-애정형’이라 하였다. 두 번째 대표프로파일은 주로 방임을 하는 유형으로 ‘방임형’이라 하였고, 세 번째 대표프로파일은 ‘학대형’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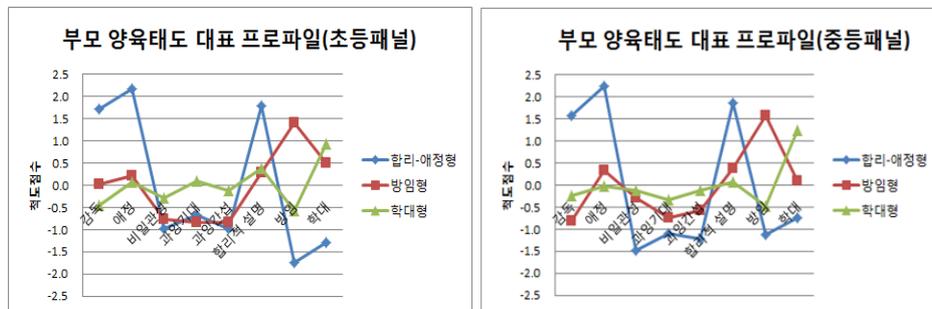


그림 1. 부모 양육태도 대표 프로파일(초등패널 및 중등패널)

위 그림 1에서의 세 프로파일에 대한 척도점수의 정확한 수치는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도출된 차원의 각 척도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200번 수행하였다. ‘학대형’의 일부 척도점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다차원척도 분석 결과

		합리-애정형	방임형	학대형
초등 패널	부모감독	1.72 (0.01)	0.02 (0.01)	-0.45 (0.03)
	부모애정	2.18 (0.01)	0.22 (0.01)	0.06 (0.01)
	비일관성	-0.99 (0.01)	-0.76 (0.05)	-0.29 (0.02)
	과잉기대	-0.66 (0.01)	-0.84 (0.05)	0.09 (0.01)
	과잉간섭	-0.99 (0.01)	-0.83 (0.05)	-0.12 (0.01)
	합리적 설명	1.79 (0.01)	0.29 (0.02)	0.37 (0.02)
	방임	-1.74 (0.01)	1.40 (0.08)	-0.58 (0.04)
	학대	-1.30 (0.01)	0.50 (0.03)	0.92 (0.06)
중등 패널	부모감독	1.57 (0.01)	-0.80 (0.01)	-0.23 (0.02)
	부모애정	2.25 (0.00)	0.34 (0.01)	-0.03 (0.01)
	비일관성	-1.48 (0.01)	-0.28 (0.01)	-0.13 (0.01)
	과잉기대	-1.11 (0.01)	-0.73 (0.01)	-0.34 (0.02)
	과잉간섭	-1.22 (0.01)	-0.57 (0.01)	-0.11 (0.01)
	합리적 설명	1.86 (0.01)	0.38 (0.01)	0.06 (0.01)
	방임	-1.12 (0.01)	1.57 (0.01)	-0.47 (0.03)
	학대	-0.75 (0.01)	0.10 (0.01)	1.24 (0.04)

참고: 굵은 글씨는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척도점수이며, ()는 표준오차임.

3. 개인별 프로파일 분석

‘2. 부모 양육태도의 대표적 프로파일’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대표적 프로파일’을 추출한 것이므로, 모든 학생들이 도출된 프로파일과 동일한 유형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PAMS모형은 개인별 프로파일을 전체 평균 프로파일과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위에서 추출된 세 대표 프로파일에 대하여 개별 프로파일의 전반적 높이를 나타내는 수준 모수와 개개인의 관찰된 프로파일이 대표 프로파일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유사성 지수들의 기술통계는 다음 표 5와 같다. 각 대표 프로파일은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프로파일의 68%,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6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PAMS 분석 결과 추정된 개인 모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초등 패널	합리-애정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2,247	-1.52	0.83	0.00	0.38
	방임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2,247	-1.66	1.90	0.01	0.54
	학대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2,247	-2.74	3.42	0.00	0.66
	수준 모수	2,247	-1.76	2.19	0.00	0.46
	R^2	2,247	0.01	1.00	0.68	0.23
중등 패널	합리-애정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2,276	-1.40	1.05	0.00	0.40
	방임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2,276	-1.63	2.13	0.00	0.51
	학대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2,276	-2.36	2.87	0.00	0.65
	수준 모수	2,276	-1.89	1.75	0.00	0.42
	R^2	2,276	0.00	0.99	0.66	0.24

다음 표 6은 PAMS로 도출된 각각의 개인 모수의 의미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 중학교 2학년 패널에서 일부 학생들을 선택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6
5명의 학생에 대한 개인 모수 추정치

학생 ID	합리-애정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방임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학대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수준 모수	R^2	
중등 패널	166936	1.05	0.12	0.10	-0.51	0.98
	63638	0.17	1.02	-0.06	-0.98	0.71
	107818	-0.81	-1.56	-0.59	0.08	0.93
	52810	-0.04	-0.58	1.25	1.49	0.63

표 6에서 ID가 166936인 학생은 합리-애정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가 가장 높아 그림 2의 합리-애정형 대표 프로파일과 거의 유사한 그래프를 볼 수 있다(합리-애정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 1.05). 다만, 수준 모수가 -0.51로 나타나 합리-애정형 대표 프로파일보다 위치가 다소 낮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표 프로파일을 설명하는 정도는 98%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ID가 63639인 학생은 방임형 프로파일에 대한 유사성 지수가 1.02이고, 수준 모수는 -0.98로 방임형 프로파일보다 매우 낮은 위치

에 형성되어 있다. 107818번 학생의 경우, 합리-애정형과의 유사성 지수가 -0.81, 방임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가 -1.56로 유사성 지수의 절대값은 매우 높게 나타나 방임형의 프로파일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이나, (-)값을 지니므로 방임형의 미러 프로파일(mirror profile)²⁾의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학생의 경우 합리-애정형과 학대형의 유사성 지수 또한 상당히 높게 나타나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52810번 학생은 학대형 프로파일과 유사한 형태로 평균 높이가 1.49정도 높은 형태이며, 부모의 학대 정도가 큰 경우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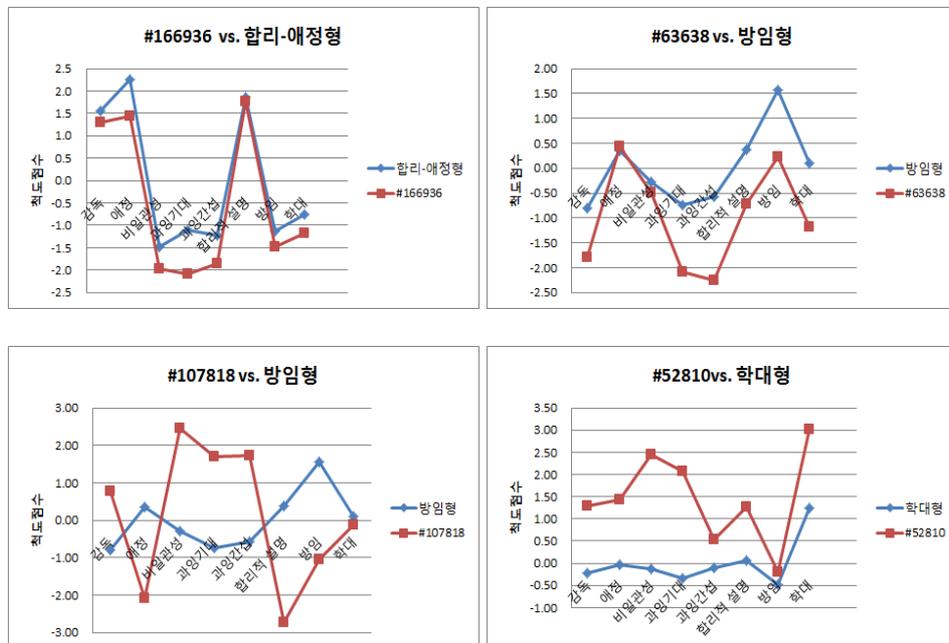


그림 2. 개인 프로파일의 예시와 대표 프로파일과의 비교

뿐만 아니라 이처럼 개인별로 도출되는 유사성 지수와 수준 모수는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박현정, 양명희, 2007; Kim et al., 2004). 대표 프로파일과의 유사성 지수와 교육 변인(학교 적응 및 학업성취도)과의 상관은 다음 표 7,

2) 미러 프로파일(mirror profile)이란 대표적 프로파일을 거울에 반사시킨 것과 같이 척도치의 부호를 뒤집어 제시하는 것이다(박현정 외, 2011).

표 8과 같다. 합리-애정형 프로파일의 유사성 지수는 학교 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방임형 프로파일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학대형의 경우에는 상관이 거의 없었으나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문항을 부모의 엄격성과 관련된 문항으로 볼 때, 일부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주미와 탁정미(2004)의 연구에서 부와 모의 양육태도를 폐쇄적으로 지각한 이동일수록 보다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나, Steinberg et al.(1994)의 연구에서 권위적 양육태도의 경우 아시아계 미국인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것과는 유사하다. 그러나 학대형의 경우 상관관계의 정도가 미미한 수준인 반면, 합리-애정형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은 0.290에서 0.398, 중학교 2학년에서는 0.170에서 0.298로 상관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나타남을 주목할 수 있다.

표 7
개인별 모수와 학교 적응간의 상관 분석

		합리-애정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방임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학대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수준 모수
초등 패널	학습활동	0.398 ^{***}	-0.178 ^{***}	0.082 ^{***}	0.017
	학교규칙	0.332 ^{***}	-0.137 ^{***}	0.057 ^{***}	0.003
	교우관계	0.308 ^{***}	-0.135 ^{***}	0.010 ^{***}	-0.040
	교사관계	0.290 ^{***}	-0.152 ^{***}	0.098 ^{***}	0.072 ^{**}
	전체	0.398 ^{***}	-0.178 ^{***}	0.082 ^{***}	0.017
중등 패널	학습활동	0.298 ^{***}	-0.128 ^{***}	0.088 ^{***}	0.023
	학교규칙	0.173 ^{***}	-0.151 ^{***}	0.008	0.047 [*]
	교우관계	0.259 ^{***}	-0.212 ^{***}	-0.024	-0.021
	교사관계	0.170 ^{***}	-0.179 ^{***}	0.050 [*]	0.087 ^{***}
	전체	0.279 ^{***}	-0.246 ^{***}	0.002	0.060 ^{***}

* p<0.05, ** p<0.01, *** p<0.001

표 8은 개인별 모수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 분석 결과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합리-애정형 프로파일과의 유사성 지수는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방임형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학대형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은 거의 상관이 없었지만, 중학교 2학년은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표 8
개인별 모수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 분석

학업성취도		합리-애정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방임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학대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수준 모수
초등 패널	국어	0.249 ^{***}	-0.047 [*]	0.007	-0.060 ^{**}
	영어	0.266 ^{***}	-0.076 ^{***}	0.014	0.009
	수학	0.167 ^{***}	-0.110 ^{***}	0.047 [*]	0.003
	전체	0.292 ^{***}	-0.102 ^{***}	0.030	-0.016
중등 패널	국어	0.169 ^{***}	-0.172 ^{***}	-0.104 ^{***}	-0.034
	영어	0.156 ^{***}	-0.164 ^{***}	-0.088 ^{***}	0.012
	수학	0.115 ^{***}	-0.164 ^{***}	-0.089 ^{***}	0.042 [*]
	전체	0.167 ^{***}	-0.190 ^{***}	-0.107 ^{***}	0.010

^{*} p<0.05, ^{**} p<0.01, ^{***} p<0.001

4. 집단 차이 분석

이하에서는 위에서 도출한 PAMS 결과에 대해 성별과 각 과목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집단 간 개인 모수의 차이를 분석하고, 집단 간 프로파일을 제시하였다.

1) 성별

우선, 성별에 따른 개인 모수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분석 결과, 중등패널에서 학대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 모수에 따라 남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개인 모수와 성별 간의 t검정 결과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초등 패널	합리-애정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남자	1,169	-0.07	0.37	-10.13	0.000
		여자	1,078	0.08	0.37		
	방임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남자	1,169	-0.06	0.54	-6.14	0.000
		여자	1,078	0.08	0.53		
	학대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남자	1,169	0.10	0.68	7.83	0.000
		여자	1,078	-0.11	0.62		
	수준 모수	남자	1,169	0.05	0.47	5.61	0.000
		여자	1,078	-0.06	0.43		
중등 패널	합리-애정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남자	1,150	-0.03	0.38	3.97	0.000
		여자	1,126	0.04	0.41		
	방임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남자	1,150	-0.01	0.51	-0.59	0.554
		여자	1,126	0.01	0.51		
	학대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남자	1,150	0.06	0.69	4.65	0.000
		여자	1,126	-0.06	0.61		
	수준 모수	남자	1,150	0.09	0.43	10.89	0.000
		여자	1,126	-0.09	0.38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평균적인 프로파일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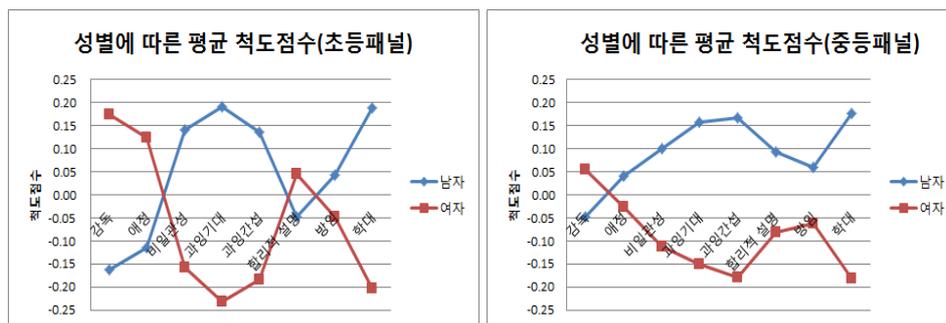


그림 3. 성별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 평균 척도점수

이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척도점수는 X축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적인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프로파일 분석의 미리 프로파일과 유사하다.

2)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에 따른 개인 모수의 차이를 MANOVA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개인 모수는 성취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국어와 영어 과목은 학업성취도에 따라 합리-애정형과 방임형 프로파일의 유사성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학대형 유사성 지수는 국어와 영어 성취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수학 과목의 경우 합리-애정형, 방임형, 학대형의 유사성 지수는 모두 성취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학교 2학년의 경우, 합리-애정형, 방임형, 학대형 유사성 지수 모두 국어, 수학, 영어 성취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10

과목별 학업성취도에 따른 개인 모수 차이에 대한 다변량검정 결과

			Wilks의 람다	F	df	유의 확률
국어	초등 패널	합리-애정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0.908	37.963	4	0.000
		방임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5.801	4	0.000
		학대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0.794	4	0.529
		수준 모수		4.302	4	0.002
	중등 패널	합리-애정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0.914	17.618	4	0.000
		방임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18.963	4	0.000
		학대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8.656	4	0.000
		수준 모수		1.400	4	0.232
수학	초등 패널	합리-애정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0.942	16.214	4	0.000
		방임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9.257	4	0.000
		학대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2.524	4	0.039
		수준 모수		0.591	4	0.669

			Wilks의 람다	F	df	유의 확률
	중등 패널	합리-애정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0.947	7.815	4	0.000
		방임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15.752	4	0.000
		학대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5.176	4	0.000
		수준 모수		1.588	4	0.175
영어	초등 패널	합리-애정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0.912	43.604	4	0.000
		방임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3.571	4	0.007
		학대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0.475	4	0.754
		수준 모수		1.434	4	0.220
	중등 패널	합리-애정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0.933	15.163	4	0.000
		방임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16.179	4	0.000
		학대형에 대한 유사성 지수		4.855	4	0.001
		수준 모수		0.236	4	0.918

V. 요약 및 논의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1,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 양육태도의 프로파일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교육 변인과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부모 양육태도를 유형론적으로 접근한 허묘연(2000)의 척도를 참고하여 부모 양육태도를 8가지 유형으로 2년에 걸쳐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험적으로 8가지 유형이 각 척도점수를 가지는 대표 프로파일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 패널 2,247명과 중학교 1학년 패널 2,276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및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대표 프로파일은 초등패널과 중등패널에서 각각 도출하였다. 각 집단별로 도출된 대표적 프로파일은 대체로 유사한 형태였고, 따라서 연구지는 두 집단 모두에서 세 가지 차원 각각을 ‘합리-애정형’, ‘방임형’, ‘학대형’으로

명명하였다. 도출된 차원의 각 척도 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수행한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각 대표 프로파일의 척도 점수는 학대형의 일부 척도점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처럼 프로파일 분석은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대표적인 프로파일을 경험적으로 도출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둘째, PAMS 분석 결과 세 가지 대표 프로파일과 더불어 개인별로 각 프로파일과의 유사성 지수와 수준 모수가 도출되었다. PAMS의 장점 중 하나는 개인 모수가 도출된다는 점인데, 이에 따라 각 개인별로 각 대표 프로파일과의 유사성과 수준 모수, 그리고 설명력이 도출된다. 각 대표 프로파일들은 초등 패널 프로파일의 68%, 중등 패널 프로파일의 6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도출된 개인 모수들은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합리-애정형 프로파일의 유사성 지수는 학교 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방임형 프로파일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개인별 모수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 분석 결과, 합리-애정형 프로파일과의 유사성 지수는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방임형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학대형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의 학업성취도와는 상관이 없었지만, 중학교 2학년의 학업성취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셋째, 위에서 도출한 PAMS 결과를 성별과 각 과목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집단 간 개인 모수의 차이를 분석하고, 집단 간 평균적인 프로파일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남녀 간 개인 모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남학생들의 평균 척도 점수와 여학생들의 평균 척도 점수는 각각의 미러 프로파일의 형태로 서로 X축에 대칭되는 형태를 나타냈다. 학교급별 학업성취도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 평균 척도 점수는 집단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학업성취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부모 양육태도가 합리-애정형 프로파일에 가깝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일수록 부모 양육태도가 방임형 혹은 학대형 프로파일에 가까웠다.

최근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의 중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학교 안팎으로 여러 가지 해결방법과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되고 있다. 다양한 교양 수업을 활성화하고 상담교사를 늘리는 등의 거시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 적응과 학업성취도와 같은 교육관련 변인들과 관련성이 크다는 연구결과에 착안하면,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처방책을 넘어 근본적으로 ‘부모 교육’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자녀의 생활을 알고, 애정을 갖는 것이 자녀의 '학교 적응' 및 '학업성취 수준'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프로파일 도출, 그리고 각 프로파일과 교육 변인과의 관계를 보는 데에 초점을 두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비롯하여 또래환경이나 매체환경 등 다양한 생태체계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출된 부모의 양육태도 프로파일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프로파일에 집중하여 그 프로파일을 가진 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곽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 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1), 1-26.
- 권용준, 김영희 (2011).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자아조절이 게임과 몰입과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6), 99-121.
- 권재환, 이은희 (2006). 남녀 청소년의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 - 자녀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1), 325-351.
- 김근아 (2011). **충동성, 부모양육태도, 생활습관, 자기조절 학습능력, 학습동기가초등 학생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린, 이기학 (201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독립성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2(4), 125-143.
- 김용곤 (2011). **부모의 역기능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 간 관계에서 성격강점의 중재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근, 이기학 (2008).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조합패턴과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9(3), 1183-1200.
- 남상아, 백지숙 (2011). 다문화 가정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9(1), 3-12.
- 류경희 (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41(12), 147-168.
- 박현정, 양명희 (2007).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한 탐색적 프로파일 분석: 중학생들의 자조절학습 변인을 중심으로. **교육평가연구**, 20(4), 121-137.
- 서주현 (200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지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소선숙, 송민경, 김청송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학교 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3), 1-23.
- 송혜영, 김은숙, 마여실, 왕세진 (1996). 자녀가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성취 및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정관리연구**, 15, 169-185.
- 안현지 (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 지능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연구노트**, 11(1), 1-15.
-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청소년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과 학교 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161-180.
- 이경아, 정현희 (1999).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693-704.
- 이승화 (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 및 학교 적응과의 관계. **교육연구**, 1(20), 85-104.
- 이영미, 민하영 (2004).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 적응에 따른 아동의 우울성향. **대한가정학회지**, 42(4), 1-10.
- 이주희, 탁정미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논문집**, 14, 209-227.
- 이희영, 최태진 (2005). 부모의 양육행동과 후기 청소년의 심리적 분리와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6(2), 93-123.
- 임성윤 (2006). 중학생이 지각한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12(4), 339-379.
- 장영애, 박정희 (2008).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2), 67-85.
- 조은정 (2012).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5(1), 35-50.
- 최숙현 (2009).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 및 학교 적응. **한국예술치료학회지**, 9(2), 189-211.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혜자, 최윤화 (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논문집**, 22(1), 285-304.
- Baumrind, D. (1978). Parental disciplinary patterns and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Youth & Society*, 9(3), 239-276.
- Berk, L. (2010).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Boston, MA: Pearson.
- Beyer, S. (1995).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Parenting styles as mediating variable. *Developmental Review*, 15, 212-253.

- Davison, M. L. (1994). Multidimensional scaling models of personality responding. In S. Strack, & M. Lorr (Eds.), *Differentiating normal and abnormal personality*(pp.196-215). New York: Springer.
- Davison, M. L., Gasser, M., & Ding, S. (1996). Identifying major profile patterns in a population: An exploratory study of WAIS and GATB patterns. *Psychological Assessment, 8*(1), 26-31.
- Davison, M. L., Kim, S., & Ding, S. (2001). Profile analysis via multidimensional scaling(PAMS): Exploring the predominant profile patterns in data. (ERIC Document Reproduction NO. ED 453270).
- Kim, S., Frisby, C. L., & Davison, M. L. (2004). Estimating cognitive profiles using profiles analysis via multidimensional scaling (PAM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9*(4), 595-624.
- Kruskal, J. B. (1964). Multidimensional scaling by optimizing goodness of fit to a nonmetric hypothesis. *Psychometrika, 29*, 1-27.
- Leung, K., Lau, S., & Lam, W. L. (1998). Parenting styles and academic achievement: A cross-cultur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4*(2), 157-172.
- Morrow, W. R., & Wilson, R. C. (1961). Family relations of bright high-achieving and under-achieving high school boys. *Child Development, 32*(3), 501-510.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235.
- Stanton, H. C., & Reynolds, C. R. (2000). Configural frequency analysis as a method of determining Wechsler profiles type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5*, 434-448.
- Steinberg, L., Lamborn, S. D., Darling, N., Nina, S., Mounts, N. S., & Dornbusch, S. M. (1994). Over-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3), 754-770.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Y. :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ABSTRACT

Exploratory profile analysis regarding parenting styles : With a special focus on students'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Park, Kyungin* · Chung, Seungwon* · Shin, Ann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a number of representative profiles of parenting styles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iles of parenting styles and educational variables including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using the 1st and 2nd year of Children Youth Panel Survey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ree dimensions were extracted from the analysis of representative profiles of parenting styles: 'reasoning and affection', 'neglect', and 'physical abuse'. Second, similarity indices of 'reasoning and affection' profile were positively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bot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panels, while those of the 'neglect' profile were negatively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both panels. In addition, the similarity indices of the 'physical abuse' profile were negatively related to academic achievement in the middle school panel. Third, the differences among the observed groups, which can be divided according to gender and level of achievement were examined in greater depth. The results from group analysis indicate that the parametric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mean scale scores of parenting styles for the high achievement students' group were similar to the 'reasoning and affection' profil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s 'parenting styles' as a whole concept while other previous studies have tended to focus on sub domains.

Key Words : parenting style, school adjustment, academic achievement, multidimensional scaling, profile analysis via multidimensional scaling(PAMS)

투고일 : 2013. 3. 9, 심사일 : 2013. 3. 25, 심사완료일 : 2013. 4. 22

* Seoul National University.